

中古기계의 유통 실태

柳 在 憲*

왜 중고 기계인가?

중고 기계를 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고 자동차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동차의 경우, 국세법에 규정된 法的耐用年數는 7 년이다. 자동차의 성능이나 기능은 운행 여건에 따라 다르긴 하나 통상 7 년 정도이면 폐차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폐차가 될 때까지 운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적어도 약 3~4년 정도가 지나고 신차가 나오면 기존의 자동차(중고 자동차)를 매각하고 신차를 구입한다.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신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 중고차를 매입한다. 중고차 시장은 이렇게 중고차를 매각하려는 사람과 매입하려는 사람을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켜 준다.

이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로 대체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만일 현재 사용중인 자동차의 판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차가 새로 나와 사고 싶어도 선뜻 기존의 차를 그냥 버릴 용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총 자동차 수요 중 대체 수요는 대략 70~80%에 이르고 있다. 중고 자동차 시장이 없다면 대체 수요의 상당량이 축소될 것이다.

둘째로 제품 사이클을 단축시키고 중고 자동차 수요를 충족시킨다. 자동차 회사가 내용 연수 이내에서 신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중고차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이른바 자동차 보유자가 느끼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겨냥해서 신차를 만들 유인이 발생하여 제품 사이클을 단축시키는 경쟁이 가능해진다. 이와 동시에 신차보다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중고 자동차를 원하는 수요를, 중고 자동차 시장이 충족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자동차 수요 폭을 확대시켜 준다. 즉 중고차 시장은 신차 구매자와 중고차 구매자의 효용을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석사 국제경제 전공

모두 만족시켜준다.

셋째로 중고자동차 시장은 자동차의 내구 성능을 평가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어느 자동차가 더 좋은 것이냐는 얼마간의 운행 기간을 거친 후에 판결이 난다. 중고 시세가 얼마이냐에 따라 신차에 대한 수요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자동차가 제품의 표준화 정도가 높은 내구 소비재인데 반해, 기계는 다종 다양하고 전문성이 있는 자본재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있다고 해도 중고 기계 시장도 앞서 살펴본 중고 자동차 시장과 같이 유사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motorization)로 접어들면서 중고 자동차 시장의 의의가 커지게 된 것 같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가 30년이 넘어서고 있고 기계설비의 대체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고 기계 시장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중고 기계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이 중고 기계인가?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무엇을 중

고 기계로 보아야 할 것인지 막연하기 짝이 없다. 우선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 중고 기계의 범주는 기계가 사용됨으로써 신 기계의 기능이 다하여 고철로 되기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모든 기계, 즉 기계의 감가상각이 처음 시작하여 100% 마칠 때까지에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나 설비는 중고 기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갓 구매된 신차에서 폐차까지의 모든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라고 볼 수 없듯이 이 정의는 유용하지 않다.

<표 1> 주요 기계설비의 법적 내용 연수

주요 품목	耐用 年數
금속 제품 제조업	8~11
기계 제조업	8~10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	4~8
수송용 기계 제조업	7~11
섬유 공업	3~11
펄프紙 가공제품 제조업	6~11
인쇄 제본 출판업	5~10
식료 제조업	3~13

자료: 三逸會計法人, 1993. 『國稅便覽』.

다음으로 법적 내용 연수가 지난 기계를 중고 기계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현재 稅法에 규정된 주요 기계 품목의 법적 내용 연수는 <표1>과 같이 짧게는 3 년에서 길게는 13 년까지이고 제품 수명이 비교적 짧은 전기기계 기구의 경우는 4~8 년으로 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를 때 우리나라의 중고 기계는 어느 정도나 될까? 내용 연수가 기계나 설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대략 평균해서 7 년으로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기계 시설 중 40% 이상이 중고 기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의도 적절치 않다. 법적인 내용 연수가 지난 자동차는 법적으로 폐차라고 볼 수 있듯이 내용 연수가 지난 중고 기계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표 2> 법적 내용 연수가 지난 기계설비가 40%**

이상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기계설비가 낙후되었고,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내용 연수가 넘는 기계가 이렇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기계설비의 대체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중고 기계의 유통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만일 경제적인 내용 연수에 이른 기계설비가 시장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유통된다면 법적인 내용 연수를 초과한 기계설비의 비중은 훨씬 낮아질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 우리나라 기계 시설의 보유 현황
(단위: 대)

	합 계	1985년 이전의 도입	1986~91년 기간의 도입
기계시설 합계	649,327	267,631 (41.2)	381,696 (58.8)
금액 (억 원)	96,500	14,741 (15.3)	81,759 (74.7)
중소기업	101,525	44,546 (44.9)	55,979 (55.1)
대기업	547,802	223,085 (40.7)	324,717 (59.3)

자료: 상공자원부·한국기계공업진흥회, 1993. 「기계시설보유실태조사보고서」.

주:1) 이 보고서의 표본 대상 업체는 종업원 100인 이상,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1,315 개사였고 이 중에서 80.6%인 1,059 사가 조사되었음. 표본 조사 업체의 기계 시설 보유액은 우리나라 제조업 총 기계 시설 보유액 28조 원 중 61%에 해당됨.

2) ()는 기계 시설의 도입 시기별 비중(%)을 나타냄.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정의는 新기계설비를 구입한 업체가 법적, 경제적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은 기계설비의 이용을 중지하여 유휴 설비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 이용을 포기하여 매각하려고 내놓은 기계설비를 중고 기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중고 기계는 기계설비의 이용이 중단되어 매매를 전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정의와 차이점을 보인다.

다음 <표 3>에서 보여지듯이 199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기계설비 중 생산 과정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기계설비 규모는 2,000여 대, 약 12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규모가 총 기계 시설 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수 기준으로는 0.46%이고 금액 기준으로는 0.12%이다. 그리고 동 보고서에 의하면 이 중에서 1985년 이전에 설치

된 기계설비 중 유휴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서 현재의 유휴 설비의 대부분은 법적 내용 연수가 지난 기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런 유휴 설비는 비록 대부분이 법적 내용 연수를 넘기긴 했으나 중고 기계 시장에서 매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3> 업종별 유휴 기계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백만 원)

업 종	대수	금 액
음,식료품 공업	290	1,782
섬유,가죽 공업	1,747	2,259
목재,가구 공업	17	64
제지,인쇄 공업	11	473
석유,화학 공업	72	1,858
비금속,광물 공업	189	1,239
제1차 금속 공업	31	414
기계 공업	358	3,304
기타 제조업	241	568
기계 시설 총계	2,956	11,964

자료: 상공자원부·한국기계공업진흥회, 1993.
「기계시설보유실태조사보고서」.

그러나 기계공업진흥회에 의하면, 현재 국내 제조업체가 보유한 생산 기계 및 설비 가운데 노후화된 물량은 이러한 유휴 기계 설비 120억 원 어치를 포함하여 모두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고 기계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¹⁾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고 기계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중고 기계의 유통 구조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중고 기계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유통 구조(중고 기계 시장)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중고 기계의 공급은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발적인 공급’과 ‘비자발적인 공급’이 있다. 전자는 기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때나 기계설비를 개체하려고 할 때 매각되는 중고 기계이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 내용 연수나 경제적 내용 연수가 넘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일 중고 기계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은 중고 기계가 자발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자발적 공급은 도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계를 매각해야 할 때 매물로 나온 중고 기계이다. 이 경우에 빈번하게 나온 중고 기계 매물은 주로 부

1) 현재 우리나라 중고 기계의 유통 실태에 관한 연구는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관련 업계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단기간의 조사 연구인 까닭에 부족한 점이 많으며 향후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시론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도가 잦은 중소기업쪽에서 많다.

해외로부터의 중고 기계 공급(중고 기계의 수입)은 국산화 품목으로 지정되어 신기계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거나 수입 기계가 매우 고가일 경우이다. 현재 수입 기계의 수입액이 3천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상공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그 이하일 때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해외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계는 공작기계와 인쇄기계로 알려져 있다.

중고 기계 수요의 경우도 국내와 해외로 나뉜다. 국내의 경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창업 중소기업의 수요가 크다. 그런데 중고 기계의 수요에서 중요한 점은 수출 수요이다. 해외란 주로 우리나라보다 산업화의 역사가 짧거나 산업화 수준이 낮은 나라로서 중국, 중동, 동남아 등 구 공산권이나 신흥 개도국들이다. 이들 나라는 자국의 기계 산업이 아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기계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중고 기계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중고 기계의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유통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유통 구조는 어떤 유통 통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유형은 중개인이 없이 비공식 통로로 실수요자와 실공급자 간에 일어나는 거래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매매 유형으로서 도산, 휴업 등에 의한 비자발적 공급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적인 인맥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둘째 유형은 전문적인 개인중개자나 비전문적인 수입 오퍼상(종합상사를 포함)에 의해 거래되는 유형이다. 이것은 보통 범용 기계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로서 특정 지역에서 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영등포 시장 주위에 있는 중고 중기 시장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셋째 유형은 공매나 정보 매체를 통해 거래 성사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기종이나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 간의 정보 유통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공매에 의한 것은 주로 비자발적 공급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리스(lease)회사 등이 채권 변제 업무의 일환으로 중고 기계를 매각할 때이다. 시설자금 보증 지원을 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양도 담보로 기계 구입 자금을 빌린 기업체의 사고 사유가 발생시 공매를 통해서 채권을 변제받는다. 공매는 한국감정원(감정 수가는 감정 가격의 8~10/10,000)에게

감정 의뢰를 하여 이루어지고 1차 공매가 유찰되면 가격은 15% 내리고 최저 30%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정보 매체에 의한 것은 주로 기계 관련 전문지가 이용된다. 「종합기술정보」(중소기기업진흥공단), 「산업기계신문」(주간신문), 「경영과 기술」(기업은행), 「한국기계가이드」 등이 있다. 특히 정보 매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간의 매매를 성사시켜 주는 비영리 단체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에 설치된 「중고 기계알선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신규 설비 투자 등으로 불필요해진 중고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새로이 기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중 비용 절감을 위해 중고 기계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연계, 중소기업이 원가를 절감하면서 설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1987년에 설치되었으며 1년에 1~2 회씩 중고 기계 실태조사를 기초로 ‘중고 기계 매매 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넷째 유형은 전문 유통 회사가 중심이 되어 국내외 중고 기계를 성사시키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기업은 중고 기계 관련 매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거래 수수료(총 금액의 5~10%) 획득을 목적으로 중고 기계 유통을 담당하는 전문 유통 업체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우종합기계통상이다. 이 회사는 1993년 12월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크린 룸 칸막이(clean room partition)

를 만들고 있는 삼우내외산업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독자적인 정보관리시스템(QCM system)을 구축, 국내외 유휴 생산 설비와 중고 기계 금형류의 매매 알선을 해주는 중고 기계의 전문 유통 업체이다. 1억 5천만 원이 투자되어 개발된, 자동 알선 시스템인 QCM 시스템은 기계의 가격 성능 등을 입력시켜 즉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데이콤의 정보 라인과 연결, 회원 업체들이 매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지만 소규모의 몇몇 중고 기계 전문 알선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고 기계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에 들어 중고 기계 매물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고 기계 알선센터에 의뢰한 업체수를 보면(<표 4> 참조), 1993년에는 1990년에 비해 거의 3배 이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래가 성사된 경우도 3배가 넘게 증가되고 있다. 비자발적인 공급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동 기금이 취득한 중고 기계 물량은 1990년과 1991년에 겨우 200여 건에 불과했지만 1992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1992년과 1993

년도에 중소기업의 사고(도산 등)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중고 기계의 물량이 많아지면서 거래도 급속하게 활발해지고 있다. 매각비율은 1990년의 50%에서 1993년에 거의 100%까지 증가되어 매물 증가와 함께 매각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1990~93년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매각한 총건수는 1,465 건이고 매각액은 37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거래가 활발해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省力化, 자동화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급속하게 거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은 우리나라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수천 억, 수조 원에 이

를 것으로 추산되는 중고 기계의 물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고 기계의 유통은 여전히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즉, 현 중고 기계의 유통 구조는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우리 중고 기계의 유통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시장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비공식 통로, 즉 매우 제한된 정보 유통을 통해서 매매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매매 기종도 범용 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매물이 늘어나고 각종 정보망(지역 정보 신문, 전문 잡지)의 활성화에 따라 몇몇 공식적인 단체나 기업에 의해 중고 기계의 정보 유통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즉 비공식 유통에 주로 의존해 온 중고 기계의 거래가 공식적인 정보 통로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 중고 기계 시장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이렇다할 전문 유통 업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대체로 이 분야에서 잘 알려진 유통 기관으로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고 기계알선센

<표 4> 중고 기계 매매 신청 업체수와 거래 알선 실적

(단위: 건, 백만 원)

	1990	1991	1992	1993
중소기업협동조합알선센터	305 (62)	519 (108)	1,139 (130)	1,071 (223)
기술신용보증기금	18 (9)	198 (50)	906 (597)	844 (809)
금 액	20	22	1,422	2,080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고 기계알선센터, 기술신용보증기금.

주: () 내는 매매 거래된 실적 건수이고 금액은 매각 액수임.

터가 있긴 하나 비영리 단체로서 정보 유통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전문적 유통업체는 작년에 설립된 삼우종합기계통상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유통 회사는 국내외 몇몇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으나 매매 알선에 주력하고 있을 뿐, 중고 기계를 확보할 수 있는 대형 창고를 보유하면서 전문적인 보수 서비스를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의 중고 기계 유통 구조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령 일본의 경우, 전문 업체가 15 개 정도나 되고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도 10여 개 업체가 중고 기계 유통을 전문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들 전문 유통 업체들은 대형 자체 격납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매 알선에서 중고 기계의 보수 서비스까지 행하는 전문 중개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셋째로 중고 기계의 시장 구조가 성숙화되지 못함으로써 중고 기계가 효율적인 유통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고 기계의 매매는 주로 도산이나 휴업 등이 잦은 중소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는 중고 기계보다는 신기계를 매입하고 기존 기계설비는 대부분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고 기계 시장은 판매자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에 나온 매물은 대체로 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일부 특정 중고 기계를 구입하려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내용 연수에 이른 중고 기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중고 기계 수요 업체는 필요한 설비를 신속하게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표 5> 중고 기계 유통 정보지에 나타난
매물 현황

(단위: 건)

발행처	발행시기	국내 매물	국내 매입	해외 매물	해외 매입
중소기업협동조합	1994년초	482	176	-	-
삼우종합기계 통상	1994.3.15 (창간호)	120	54	123	110
	1994.4.15 (제2호)	295	234	-	88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고 기계알선센터, 1993. 「중고 기계매매목록」, 삼우종합기계 통상, 1994. 「중고 기계유통정보」, 3.15 및 4.15.

중고 기계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두에서 보았듯이 중고 자동차 시장이 자동차 산업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듯이 중고 기계 시장도 기계 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은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기에 직면해 있다.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는 산업이 첨단 기계설비 집약적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도 제품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시간 경쟁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 산업 구조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계설비가 경제적 내용 연수를 넘지 않도록 개체 속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법적 내용 연수조차 지난 기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고 기계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바로 이런 연유에 근거한다. (기계) 시설 개체의場이 되는 중고 기계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개체 속도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경제적 내용 연수에 이른 기계를 제값을 받고 신속하게 팔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면 신형 첨단 기계로의 개체는 더욱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중고 기계 매물이 훨씬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 기계 시장은 그만큼 폭넓어질 것이다. 주된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법적 내용 연수보다는 경제적 내용 연수에 가까운 중고 기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중고 기계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산업 구

조의 고도화는 그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활성화된 중고 기계 시장이 있다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이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기계에 대한 각종 성능 평가가 시장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기계 업체에게는 중고 자동차에서도 그러하듯이 제품질에 대한 사후 평가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 제작 업체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기계 업체에도 자사제 중고 기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유력 공작기계 회사인 아마다는 신제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자사 중고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본다고 한다. 만일 가지고 있으면 아마다는 이를 구입해서 수리한 뒤, 중고 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되팔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자사제 중고 기계의 품질까지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 기계 제조업자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고 기계는 유망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아직 산업화 수준이 낮거나 외환보유가 넉넉하지 못한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쪽 국가들에게는 신형 첨단 기계보다는 중고 기계의 수요가 크다.

중고 기계를 효율적으로 유통시킬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공식적으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중고 기계 통계가 제도적으로 집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입되고 있는 중고 기계에 대해서는 품목 신고제의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며 국내에서 매매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집계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하고 올바른 통계는 중고 기계 유통의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유통 전문업체를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 업체가 이 분야에 참여할 때 각종 세제 및 금융 혜택의 제공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예처럼 중고 기계유통을 대규모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 창고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기계 감정을 할 수 있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크게 필요하다.

또한 중고 기계라 할지라도 여전히 高價인 경우가 많으므로 할부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즉각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중고 기계 구입을 위한 금융 수단의 도입도 필요하다. 현재 신기계의 구입에는 리스 금융이 있으나 중고 기계 구입과는 별 관련이 없다.

각종 기계 관련 협회에서도 중고 기계의 유통에 관한 전문 기관을 두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계의 기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 감정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다종다양한 중고 기계에 대한 성능 및 가격 평가를 담당할 전담 부서의 설치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중고 기계는 시스템 설비, 단품 기계, 중고 부품 등 3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대형 시스템 설비의 유통은 대기업이나 종합상사에서 간헐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중소 기업간에는 주로 단품 기계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고 부품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부품 시장이 중요하듯이 중고 기계 시장에서도 범용, 특수용 중고 부품의 활발한 유통은 중고 기계유통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